

Emerging Market Diagnosis 이란 건설시장 진단



2016.07.31



[시리즈 1. Emerging Market Diagnosis]



이란 건설시장 진단

[K-Hub 연구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Contents

이란 개요 _01

이란 건설시장 전망 _02

이란 건설시장 진단 _04

1. 건설사업 환경 진단 _04
2. 경제 인프라 진단 _06

이란 건설 시장 진출 전략 _07

발행처: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발행일: 2016년 7월 31일

홈페이지: www.icee.re.kr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서울대학교 316동 21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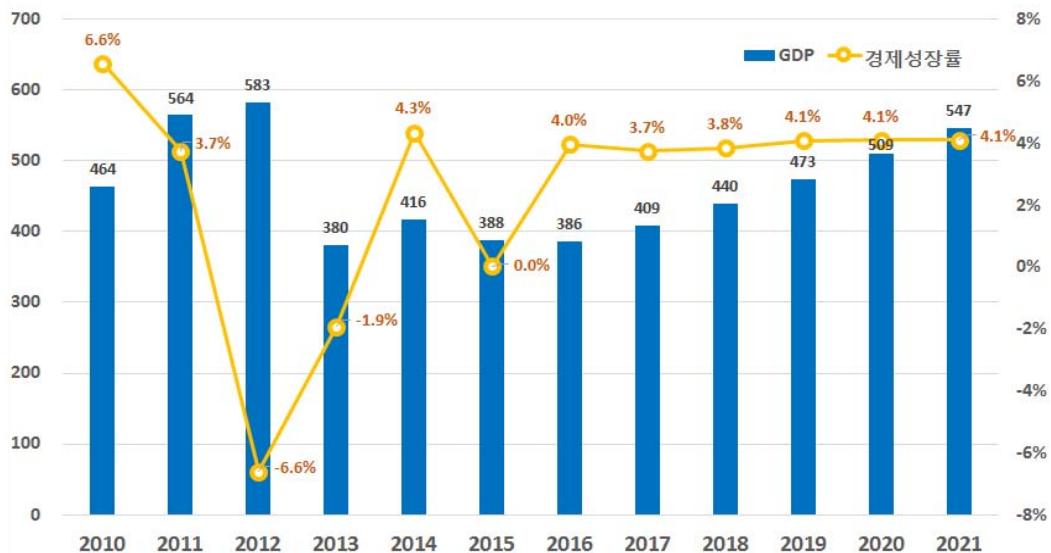
전화: 02-880-4317

※ 본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심층적인 분석 기반이 아니며, 참고용임.

이란 개요

- 세계적인 자원 부국, 젊고 숙련된 노동력, 지정학적 요지
 -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세계 4위의 원유 부존국으로 경제제재 해제로 자원개발 수입 증가 예상함.
 -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지역 국가 중 7천 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는 이집트와 이란이 있음. 즉 중동국가 중 인구규모 1위임. 인구 7,800만 명의 거대한 내수시장과 우수한 노동력을 가짐(IMF, World Bank).
 - 아시아·유럽·중동을 연결하는 허브로서 중동 3개국, 중앙아시아 4개국과 국경을 접해, 인구 약 6억의 중동·중앙아시아 시장진출에 용이함.¹⁾
- 2016년 GDP 4,162억 불로 2020년까지 매년 4%대 성장을 이뤄 약 5,500 억 불 규모로 증가 전망 (BMI, 16. Q1)
 - '90년대부터 5년 단위 '경제·사회개발 계획'을 추진하여 석유의존형 경제구조 탈피를 위해 노력 중이며²⁾, '05년부터 '20년 미래계획'을 추진하여 역내 제일의 경제·과학 선진국 달성을 목표로 수립하고 추진 중임.
 - 이란 GDP의 중동 내비중은 경제제재 강화 이후 12%(2014년)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 16%로 제재 강화 이전(2011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함.³⁾

〈그림 1〉 이란 GDP와 경제성장률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6

* GDP current price (U.S. dollars, billions), 경제성장률 constant price

1) 중동 3개국(터키, 이라크, 파키스탄) 및 중앙아시아 4개국(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과 국경을 접함, 중동+중앙아시아 인구 약 6억(중동 3.6억, 중앙아시아 2.34억)

2) 석유부문/GDP 비중 : 20%('11) -> 10%('13)

3) 국별 GDP(2015년): 사우디 6532 억 불, 이란 3,876억 불, UAE 3,454억 불

이란 건설시장 전망

- 열악한 인프라 개선 과정에서 대규모 투자 수요 발생 전망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과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국제 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 대한 평가에서 인프라 부문은 140개국 가운데 63위(4.2/7, 종합 74위)를 차지하는 등 인프라가 낮은 수준이지만, Market Size는 19위⁴⁾로 해외 투자지로서의 경쟁력이 있음.
 - 이란은 제재 기간 동안 외국자본과 선진기술의 유입이 차단되어 상당수의 인프라가 노후화됨. 제재 이후 늘어나는 물동량과 관광객 수용을 위한 항공기 대체 수요만 400대에서 600 여대에 이르며. 항만 인프라는 주변국에 비해 열악해서 앞으로 신규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란은 2020년까지 석유 부문에만 1천9백억 불을 투자할 예정⁵⁾이며, 향후 5년간 건설부문 성장률 평균 6.1%(글로벌 평균 3.2%)일 것으로 전망함.
 - 2016년도 규모 기준: 사우디 > UAE > 이란 > 카타르 > 오만 > 쿠웨이트 > 바레인

〈표 1〉 건설프로젝트 향후 전망

구분	향후 전망
플랜트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은 석유·가스 분야에서 중동의 다른 산유국과 달리 Upstream 개발도 지속 발주 예상 • 향후 10년~20년간 Upstream / Downstream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
인프라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및 서방에 의한 십 수 년 동안의 경제제재로 인한 정부재원 부족 및 공공부분에 대한 이란 정부의 의식부족으로 인프라가 매우 낙후 • 고속철도, 고속도로, 공항, 전력사업 등의 인프라 부분에서의 대규모 발주 예상
건축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사업은 민간주도로 진행됨에 따라, 경제가 회복되는 일정 시점 이후부터 민간 발주 예상

* 자료 : Kotra

〈표 3〉 분야별 프로젝트 개발계획

구분	내용
석유·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전개발에 200억 달러, 사우스파(South Pars) 가스전 개발에 290억 달러 투자 예정 • 현재 석유생산용량 400만 bpd로, 2020년까지 470만 bpd로 증가 계획 • 가스생산용량은 2017년까지 650백만 → 10억 m3로 증강 계획 • 중점 투자지역 웨스트카룬(West Karoun)으로 동 지역 내 남·북 아자데간(Azadegan), 남·북(Yaran), 야다바란(Yadavarar) 등 5개 유전

4) Domestic market size index : 18/140(rank), 5.1/7(score), Foreign Market size index : 28/140(rank), 5.5/7(score)

5) 플랜트산업협회, 글로벌 플랜트 프로젝트 동향 및 2016년 전망 세미나, 2016.3.16

석유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180백만 톤 생산 목표로 외국인투자 유치 계획 중이며 이란 남부의 Chabahar, Jask 등이 유망지역으로 꼽힘 • 현재 70여 개 플랜트(60백만 톤) 보유 중으로 진행중인 60여 개 프로젝트 완성 시 120만 톤 추가 예정 , 36개 신규프로젝트 완성 시 180백만 톤 추가 기대
도로·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테헤란 - 북부 카스피해(121km)간 고속도로 사업 추진 중 • 철도 총 1만 3천km 길이에 달하며 2025년까지 2만 5천km로 확대 예정
항만·공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다라압바스 사히드 라자이항의 3단계 발전계획(5억 달러 규모) 착수 등 시설 확대 추진 중 • 이맘호메이니 공항 2단계 확장사업(22억 달러 규모) 계획 중
발전·수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발전량은 228.1TWh로 연간 수요량(185.4TWh)을 충족하고 있으며 향후 수요 증가 시 지속적으로 확충 예정 • 가스발전 비중을 2023년까지 74%로 확대 예정 • 현재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은 석유 (55.8%), 천연가스(15.4%), 수력 (12.2%), 원자력 (5.4%), 석탄 (0.4%), 신재생에너지 (0.2%) 순임

* 자료 : Kotra, 2016

○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부 예산의 부족

- 제재해제로 해외동결자산 해제 및 석유수출 물량 확대 등을 통한 재정수입 확대가 예상되며, 그 동안 지연되었던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발주될 것이나, 발주처 예산으로 건설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또한, 기존 프로젝트 대부분이 발주처 예산 시행방법이었기 때문에 확보된 자금은 '기존 프로젝트 추진'에 중점 사용되고, 나머지 우선순위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배정될 것으로 전망함 따라서 대부분은 현재와 같이 'EPC+F'의 형태가 될 것임.

<표 2> 이란 정부 중점추진 사업방향

구분	대상사업	발주형태	비고
석유·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전(Common Field) 개발관련 사업우선 • 기존 진행 공사 우선 	EPC+Finance	Products Off-Take Agreement를 담보로 제공
석유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Petrochemical 단지 • 민간 발주 Petrochemical Plants 	EPC+Finance	NPC 규정 변경에 따른 정부보증 또는 NPC 보증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에 제약
정제산업	정부 및 민간발주 증가	EPC+(Finance)	EURO 4 도입에 따른 신규 정제 공장 발주 증가했으며, 일부 정부재원사업으로 진행
발전	IPP (대부분 CCP)	Investment (BOO)	투자 및 재원조달 요구
도로·철도	고속철도, Metro, HEPP	EPC+Finance 또는 BOT	인프라의 경우, 정부재원 부족으로 재원조달 요구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도시 개발사업 • 대규모 주택단지 • 민간 부동산 개발사업 	EPC+F 또는 Investment (투자형개발사업)	민간사업의 경우 Developer 개념으로 접근필요 (외국 업체에 재원조달 또는 투자 요구)

* 자료 : Kotra, 2016

◦ 제재 해제로 인한 경쟁 심화

- 제재로 이란시장에서 철수했던 EU, 일본기업들이 재진입하고 있으며, 터키, 인도 등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 하고 있음. 제재기간 동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중국과 이란기업의 경쟁력 증가로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⁶⁾.
- 특히, 중국은 경제제재 기간 동안 자원 개발, 인프라 건설 등 주요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옴. 중국은 자금지원을 통해 이란정부 및 발주처 관계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2014년 말 중국 정부는 이란 인프라 건설 지원액을 250억 달러에서 520억 달러로 투자 확대하기로 밝히기도 하였음⁷⁾. 경제제재 이후에도 유럽 건설사들이 빠져 나간 자리를 위안화 석유 결제 자금을 활용한 파이낸싱을 무기로, 정유·고속철도·수력발전소 등 다수의 프로젝트 수주하고 있음.

이란 건설시장 진단

1. 건설사업 환경 진단

- 이란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필요성은 크나, 이를 위한 정부의 관련 제도 및 환경 조성 능력 부족
 - 이란정부는 경제제재 해제에 따라 향후 45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적 지원은 미비함.
 - 2015년 세계은행 기준 ‘기업하기 좋은 국가’ 순위에서 2014년 대비 1단계 상승하였으나, 전체 189개국 중 118위를 차지하며, 여전히 하위권에 위치함. WEF에서 발표한 이란 사업 환경의 장애요인은 다음과 같음.
 - **Access to Financing (재정자금의 접근성)** : 불경기 지속 및 유가하락으로 정부예산이 부족하며,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조달 비용이 다대, 석유화학, 석유·가스 등 정부보증 불가 분야 다대, 달러화 결제 불가 등의 문제가 있음. 따라서 파이낸싱 역량 강화가 필요함.
 - **Inefficient government bureaucracy (비효율적 정부관료)**: 고질적인 부정 부패가 만연하며, 내부 법규 및 행정절차 불투명으로 인해 인허가, 통관문제 발생이 우려됨.
 - **Policy instability(정책의 무원칙)**: 이란에 대한 제재해제는 핵 개발 중단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제재가 복귀됨. 이 경우 대형 프

6) 유럽(에너지 부문), 중국(기 진출 프리미엄에 전 방위적), 인도(교통인프라), 터키(주택)

7) 이란 메흐르 통신, 이란 에너지부 부장관 말 인용, 2014.12.16

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될 수도 있음. 발주에서 착공, 완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건설 프로젝트의 특성상 현재의 이란상황은 수주안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임. 이점을 고려해서 제재복귀 시 위약금 없는 계약 소멸 등을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Inflation (인플레이션):** 이란시장이 기회의 땅으로 부상했지만 저유가와 이란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프로젝트 발주가 본격화되려면 어느 정도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원유수출을 재개하더라도 저유가 기조로 인해 이란정부의 재정압박이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Inadequate supply of infrastructure(인프라 공급부족):**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그 만큼 이란의 인프라 신규 공급 시장 가능성이 큼을 의미함⁸⁾. 이란의 건설시장잠재력은 크지만 잠재력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투자환경의 개선 역시 전제가 되어야 함.
- 이와 같은 까다로운 행정 규제 및 인프라 미 구축으로 인해 이란의 외국인 투자가 타 중동 국가 대비 실적이 미미한 상황임 (2013년 GDP 대비 FDI(외국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비중 0.8%)
 - 중동 국별 FDI/GDP 비중(2014): UAE 2.5%, 터키 1.6%, 이집트 1.7%, 사우디 1.1%
- **이란 건설생산 원가**
 - 이란 건설 생산 원가는 아래 <표 4>와 같이 한국과 비교해 낮으므로 때문에 현재 한국식의 가격경쟁력으로는 경쟁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함.

<표 4> 한국과 이란의 건설생산 원가 비교분석결과

구분	항목	단위	이란(A)	한국(B)	비율(A/B)	비고
자재비	철근류	TON	\$529.41	\$517.31	102%	90%
	형강류	TON	\$568.63	\$716.50	81%	
	배관류	TON	\$791.12	\$1,227.81	62%	
	콘크리트	M3	\$25.49	\$49.39	52%	
	케이블	M	\$21.36	\$16.61	123%	
노무비	기능공	M/D	\$35.53	\$117.36	31%	76%
	조세 및 간접비 50%, 작업능률 70%, Work Shift 33%					
장비비	CRANE	Day	\$17,190	\$18,439	93%	90%
	굴착/운반	Day	\$846	\$1,096	78%	

* 노무비 산정 근거 1) 조세 및 간접비, 작업능률: Local 시공사 인터뷰 결과 반영
 2) Work Shift : 3주 근무 1주 휴가로 인한 비용 반영
 * 자료 : KOTRA 해외수준협의회 23차 수요포럼 ‘이란시장 이렇게 달라진다’ (2016.03) 자료

8) WEF에서 발표한 2015~2016년 국제 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서 인프라 부문은 140개국 가운데 62위로 7점 만점에 도로는 3.7점, 철도 3.6점, 항만 3.8점, 공항 4.4점, 전력 4.1점임.

◦ 이란의 세제

- 법인소득세: 외국기업을 포함한 이란 내 모든 기업이 과세 대상이며, 회계 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관할 과세관청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세율은 25%임.
- 개인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5~35%의 세율이 적용되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0~20%의 세율이 적용됨.
-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Act, VATA) : 2015년 부가세율은 9%임. 담배와 제트연료에 부과하는 부가세율은 상대적으로 높음. 이란의 석유 판매 소득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제5차 5개년 개발계획은 부가세율을 연간 1%씩 인상함.
- 노동세: 이란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지사과건직원 등)에 대해 개인소득의 30%(공용주 23, 피공용주 7)에 이르는 과도한 노동세(Labour Surcharge)를 부과하고 있으며, 인정과세를 하고 있어 실제 외국인 노동자가 받는 급여를 이란 정부에서 국가별 직급별로 일괄 책정해 부과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이 노동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노동비자를 연장해 주지 않아 현지 주재 상사의 경우 본사의 지원으로 납부하고 있음.
- 계약세: 건설 및 용역 회사의 계약 체결 시 계약 금액의 5.5%를 원천 징수함.
- 광업세: 석유 및 기타 광물 분야 종사 기업의 순이익에 대해 55% 부과함.

2. 경제 인프라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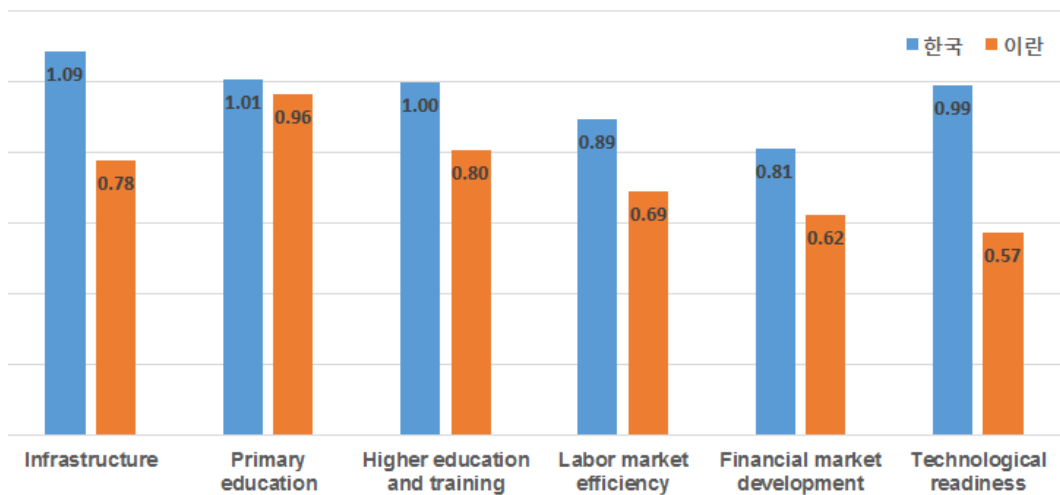
- 이란 건설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 인프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본 보고서에서는 건설 사업 수행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항목인 **인프라 충족도, 교육수준, 노동유연성, 자본성숙도, 기술성숙도**에 대해 알아보았음. WEF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값을 1로 하여 한국과 이란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그림 2>와 같음.
 - **인프라 충족도:** 한국의 72% 수준으로, 공사 현장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투입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교육 수준:** 초등교육의 경우, 한국의 96% 수준이며,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의 경우 한국의 81% 수준임.
 - 30세 이하의 젊은 인구가 전체의 60%를 차지하며, 주변국 가운데 중·고등 교육 졸업자 비율도 상위수준(중등교육 졸업자 30.5%, 고등교육 졸업자 14.7%)⁹⁾ 임. 이와 같이 고학력의 젊은 인구 층이 많은 인구구조는 이란이 그 만큼 높은 노

9) world bank에서 5년 주기로 교육수준평가를 발표하고 있음.

동력과 소비력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노동유연성:** 한국의 77% 수준으로, 현장 근로자 관리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함.
- **자본성숙도:** 한국의 77% 수준이며, 국내기업의 파이낸싱 역량을 강화하거나, 자금력이 있는 국외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함.
- **기술성숙도:** 한국의 58% 수준으로, 취약한 빌딩건축 규정 또는 법령, 시공사들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의지가 미약하며, 건축법 무시와 감리제도가 부실함. 이란 건설 시장에서 경쟁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무기로 삼아야 함을 시사함.

〈그림 2〉 한국과 이란의 경제 인프라 비교분석결과



* 자료 :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6

이란 건설시장 진출전략

- 매장 자원이 풍부하지만 경제 인프라 및 사회 인프라가 취약하며, 한국과는 문화차이가 크지만 잠재력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 건설이 도전해야 하는 시장임. 따라서 이란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① 현지 법인 설립이나 현지 기업과 협력하라

- 이란은 local contents 강화하기 위해, 이란 기업과의 협력 권장하고 있음. 이란 기업의 기술력 제고 및 고용률 확대가 목적임.
- (합작투자) 이란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정책으로 강화된 수입규제 및 高 관세를 회피를 위해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 및 현지 조립생산
 - 2015년 KOTRA의 이란 바이어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바이어들은 이란시장

진출 확대 방안으로 합작투자 및 기술이전(35%), 지사 및 현지 법인 설립(23%)을 선택함¹⁰⁾

- (정유산업) 이란의 원유 조달의 용이성과 한국의 정유 및 플랜트 기술의 우수성¹¹⁾을 결합한 합작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원료 공급원 확보가 가능함.
- (제3국 공동진출) 이란기업의 네트워크 및 시장 접근성과 한국기업의 기술력을 결합한 주변국 진출 모색이 가능함.
- 이란 기업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경험과 역량 있는 하도급 업체 선별 및 관리 능력 이 필요함. 숙련 인력 공급이 가능하면서, 재무, 세무, 노동 관련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확보가 필요함.

② 국내기업 간 과잉경쟁을 피하고, 외국기업과 협력하라

- 업계 차원에서 자율적 사전 조율을 통해 과잉경쟁을 방지하고, 시공 능력이나 금융 조달 능력 등에 따른 공동 수주 추진이 필요함.
 - 2000년 후반~2012년 중동 고유가 시기, 국내건설사들 간 출혈 경쟁으로 저가 수주한 건설사들이 대규모 손실을 낸 바 있음. 2009년 카타르 하수 종말 처리장 공사, 2011년 사우디아라비아 대형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 수주 사례 등이 대표적임.
 - 경쟁보다는 협업을 통해 손해를 방지하고, 수주 성공 확률을 높여야 하며, 특히 이란은 재정이 부족한 바, 건설사들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협력이 필요함.
- LNG 플랜트 건설, LNG 선박 수출, LNG 현물 수입의 패키지 사업 공동 진출이 유망함.
 - 현재 이란은 LNG 액화플랜트가 존재하지 않아 파이프라인을 통해 터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일부 국가에만 소량 수출 되고 있으며, 4년 내로 자국 최초의 LNG 시설 완공 목표를 수립함.
 - 우리나라 건설, 조선 기업은 LNG 분야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동시에 세계 2위¹²⁾의 LNG 수입국으로 국내에 적합한 사업 모델임.
- 중국, 유럽 등 외국기업들과의 치열한 수주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응전략으로서 외국 경쟁업체들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함.
 - 기술력(EU), 자금력(일본, 중국 등), 가격경쟁력(중국, 이란 등)
 - 이란의 인프라, 플랜트 수주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도,중국 업체와 협력 추진이 필요함. 한국의 PM(Project Management), EM(Engineering Management), CM(Construction Management) 등 전문 관리능력과 상대적으로 저

10) KOTRA, 이란 바이어 262개사 대상 설문조사, 2015.7.20

11) 한국은 비산유국이나 세계 6위 정유 수출국이며, 세계 5대 정유공장에 3곳이나 포함되어 있음 (세계 5대 정유 공장: Reliance(인도), Paraguana(베네주엘라), SK, GS칼텍스, S-Oil(Hydrocarbons Tech, 2013)

12) 우리나라 수입(37.8백만 톤)은 일본(88.8백만 톤)에 이어 2위(전 세계 LNG 수입의15% 이상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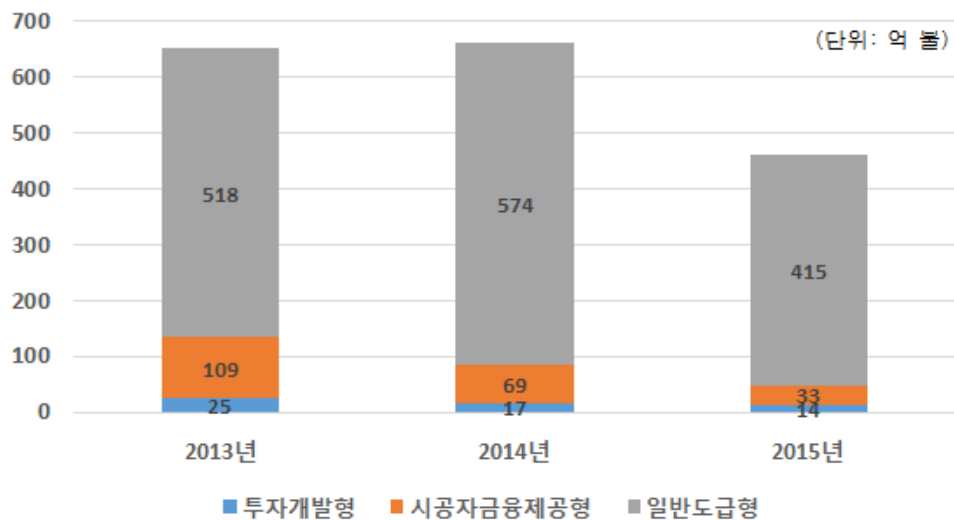
련한 인도의 설계자원, 중국의 자재 자원 결합이 필요함.

- 제재 이전 이란의 에너지 개발 시장을 유럽이 독식했듯 제재 후 공격적인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는 바, 유럽 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축 및 공동 수주 추진이 필요함.

③ 파이낸싱 역량을 강화하라

- 이란 발주 물량의 90% 이상이 시공사금융제공¹³⁾ 형태로 예상되므로¹⁴⁾ 파이낸싱 역량이 중요한 수주 기준이나, 한국기업의 파이낸싱¹⁵⁾ 역량은 부족한 편임.
- 한국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형태는 단순도급에 편중되어있으며, 개발형 사업에 대한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열세함.
- 시공사금융제공 및 투자개발형¹⁶⁾ 해외수주 비중은 지속 감소하여, 2015년 기준 전체 해외수주의 10%에 불과함.(2013년 21% → 2014년 13% → 2015년 10%)

〈그림 2〉 해외건설 발주형태별 수주액



* 자료 : 해외건설협회

- 한국기업의 개발형 해외건설수주 열세의 주요 원인은 한국의 프로젝트 평가기관 및 금융기관의 파이낸싱 역량 부족 때문임.
- 한국건설기업이 해외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10건 중 7건은 해외 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하고 있음. 한국 프로젝트 평가기관과 금융기관의 사업성 평가 역량 부족에 따른 리스크 회피 성향은 개발형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음.

13) 발주 사업에 대한 입찰제안서 제출 시 금융을 어떤 식으로 조달할 지에 대한 계획서를 내는 것. 보통 자국의 공적수출신용기관(ECA)과 함께 해당 프로젝트에 공동 진출하는 형태가 일반적

14) 대신증권 리포트, 2016.3.4

15) 회사가 아닌 프로젝트 단위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한 회사가 감당하기 큰 금액과 다양한 성격의 공사가 요구되기 때문에 대형인프라 공사에 주로 사용됨

16) 시공자가 사업개발, 지분투자, 설비운영 등 전 과정에 참여

④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하라

- 이란시장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이란 핵 개발과 관련한 의혹이 다시 제기될 경우, 제재가 다시 복구되는 일명 스냅백(Snapback) 조항이 있음. 제재가 복원되면 그 이전에 계약한 수출입 거래나 건설 프로젝트의 기득권 보호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이란이 핵 활동을 재개하거나, 핵 합의안(JCPOA)¹⁷⁾을 어겼다고 판단됐을 때, 핵협상 당사자 중 한 곳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對이란 제재 복원 가능함.
- 이란과 관련한 국제사회 동향에 주의를 기울이고, 결재대금 미지급, 과실송금¹⁸⁾ 불가 등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에 위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이란과의 계약 체결 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복귀되면, 배상금 없이 계약이 자동 해지 된다’라는 문구 포함이 필요함. 분쟁 발생 시, 현지 법정보다 국제 중재로 해결하도록 계약서에 명시 필요함.

⑤ ‘한국경제성장 과정’의 상품화 전략을 활용하라.

- 한국경제가 압축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만든 인프라를 한국 건설은 실제로 보여 줄 수 있으며, 이를 구축할 수 있는 검증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 한국 경제성장과 건설의 경험을 이란과 공유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미 이러한 산업화를 통한 고속성장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경험공유)¹⁹⁾ 사업을 이행 중이며, 이는 대상국의 제도 수립 등에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
 - (사례) 2006년 베트남 개발은행 설립, 인니 자본시장발전 5개년 계획, 카작 비즈니스 로드맵 2020 수립 등에 KSP 사업의 정책제안 내용 반영이 필요함.
 - 세계은행은 2012.7 인니 지식허브 국제컨퍼런스에서 한국을 ‘지식공유의 챔피언’으로 높이 평가한 바 있음.²⁰⁾

※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16CTAP-B080352-03) 지원을 받아 수행함.

17) 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2015.7.14. 이란과 P5+1(UN안보리 5개국 및 독일) 간 핵협상 최종 합의문서
 18) 투자자들이 외국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배당)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
 19) 한국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협력대상국에 정책연구·자문·연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경제협력사업
 20) 기획재정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통한 경제협력 활성화